

2024년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현황 진단 및 진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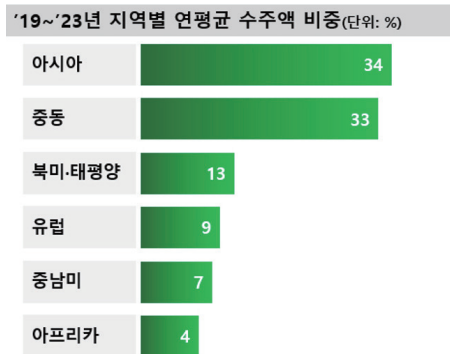
글 정지훈 / 해외건설협회 책임연구원
전화 02-3406-1054 E-mail jhjung@icak.or.kr

01 최근 5년 (‘19~’23년) 동안 해외건설 수주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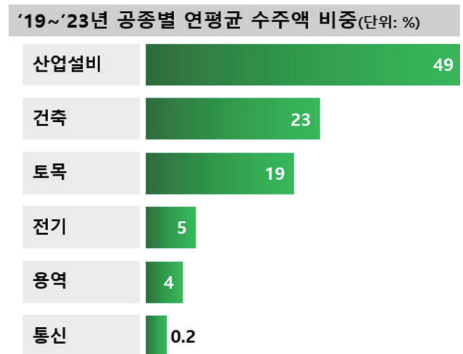
지난해 우리 해외건설 수주액은 세계 경기 둔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 하에서도 '22년 대비 8% 증가한 333억불을 기록하며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년부터 4년 연속 300억불을 상회하는 해외건설 수주를 지속하며,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5년('19~'23년) 동안 지역별 수주 현황을 분석해 보면, 총 1,523억불의 수주액 중 아시아, 중동에서 각각 523억불, 497억불을 수주하며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미국 등 북미·태평양 199억불(13%), 유럽 143억불(9%), 중남미 106억불(7%), 아프리카 55억불(4%) 순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 보면, 발전소, 정유플랜트, 화학플랜트 등 산업설비 분야에서 전체의 49%인 744억불을 수주하며, 해외시장에서 플랜트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다음으로 건축 348억불(23%), 토목 283억불(19%), 전기 76억불(5%), 용역 68억불(4%) 순으로 집계됐다.

[그림 1] 지역별,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 현황



출처 : IC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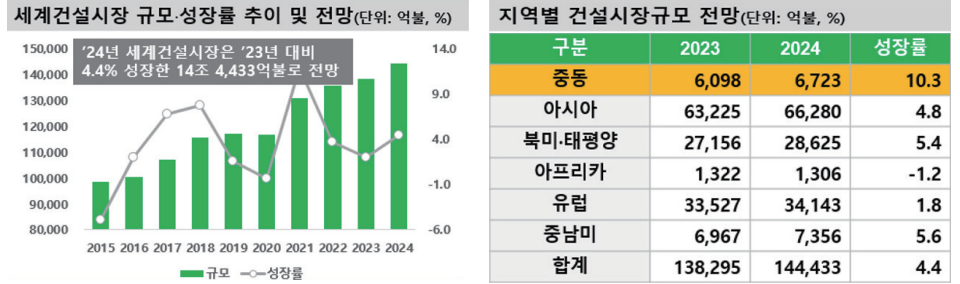


출처 : ICAK

02 '24년 세계건설시장 및 국제원유시장 전망

글로벌시장조사기업 IHS Markit('24.1)에 따르면, '24년 세계건설시장은 '23년 대비 4.4% 성장한 14조 4,433억불로 전망된다. 성장률을 살펴보면, 개선된 발주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동(10.3%), 노후 인프라 및 친환경사업 발주 확대가 예상되는 중남미(5.6%), 북미·태평양(5.4%) 시장은 5%대 성장이 예상된다. 전체 시장 규모의 46%를 차지하는 아시아(4.8%), 유럽(1.8%) 시장은 성장이 전망되나, 아프리카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1.4%)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림 2] '24년 세계건설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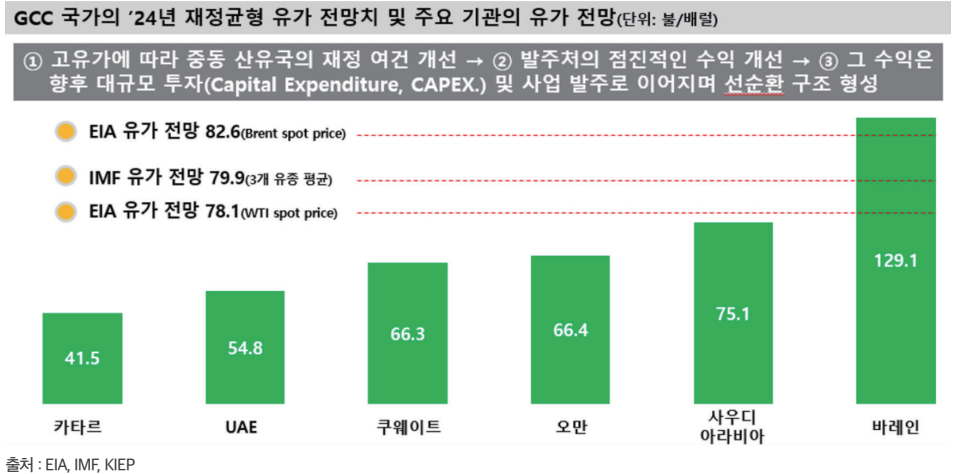


출처 : IHS Markit

출처 : IHS Markit

즉, '24년에는 중동 건설시장이 가장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원인은 고유가 기조에 따른 중동 건설시장의 발주 환경 개선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및 미국에너지정보청(EIA)의 전망에 따르면, '24년 국제유가는 80불 내외로 예상되는데 이는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중 바레인을 제외한 5개국의 재정균형 유가(Fiscal breakeven oil price)보다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GCC 국가의 재정 수입시 기준이 되는 재정균형 유가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유가가 높을 경우, GCC 주요국 정부의 재정 수입(Revenue)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계획했던 인프라 발주를 비롯한 지출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그림 3] GCC 국가의 재정균형 유가 및 국제유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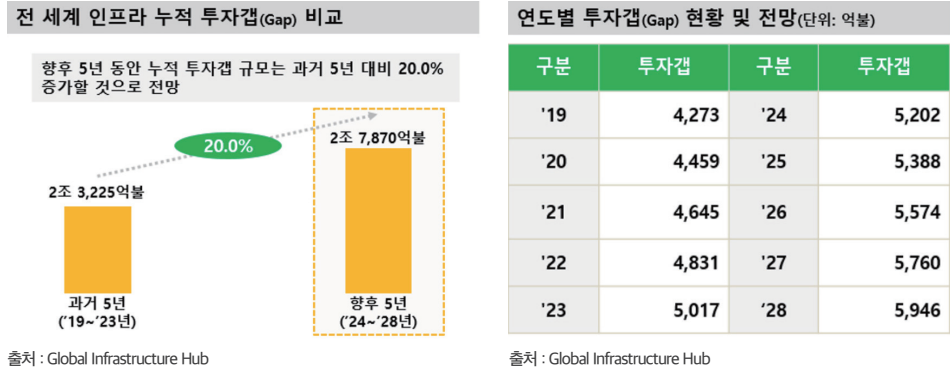
출처 : EIA, IMF, KIEP

03 매년 5,574억불의 투자액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인프라 시장

Global Infrastructure Hub¹⁾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 필요액 대비 투자 공급액 간 차이를 의미하는 투자 소요액(Investment Gap)은 향후 5년('24~'28년) 동안 총 2조 7,870억불로 추정된다. 즉, 향후 소요액이 과거 5년('19~'23년) 동안의 투자 소요액 2조 3,225억불 대비 20.0%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이는 빠른 도시화에 따른 신규 도로, 발전소,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노후 인프라에 대한 개보수 수요 증가가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①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G20가 14년, 호주에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인프라 정보 생산 공유 안전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림 4] 전 세계 인프라 투자 소요액(Gap) 전망



한편,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위해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정부 재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부족분을 다자개발은행(MDB / '22년 기준 약 2,435억불^②)이나 주요 OECD 국가들의 유무상 원조(ODA / '22년 준 약 2,040억불^③)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5,574억불 규모의 투자 소요액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고 인프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국가들은 각 국가의 특성에 맞는 투자개발형 사업 모델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일반적으로 투자개발형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우, 신규 프로젝트 추진 및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성능개선을 위해 민간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AP^④ (Availability payment) 방식을 적용하여 투자개발형 사업을 활성화하는 모델이 눈에 띈다. 반면 중·저소득국의 경우, 급격한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따라 교통 및 발전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높은 부채 및 낮은 신용도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물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관련 법을 비롯해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나, 정부 관료의 사업 경험 부족 및 시스템 미흡으로 선진국 대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전히 다자개발은행(MDB) 및 ODA를 활용한 사업 추진을 선호하고 있다. 더불어 베트남 등 일부 개도국에서는 정부 부채 급증을 우려해 차관 형태가 아닌 투자개발형 사업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향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3.1 연평균 6.5%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PF 시장 등 민간투자액 분석

지금부터는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개발형 사업 규모^⑤를 살펴보고, 국가군별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 고자 한다. 글로벌금융정보기업 Refinitiv에 따르면, 발전 및 오일·가스 등 주요 프로젝트에 투자된 글로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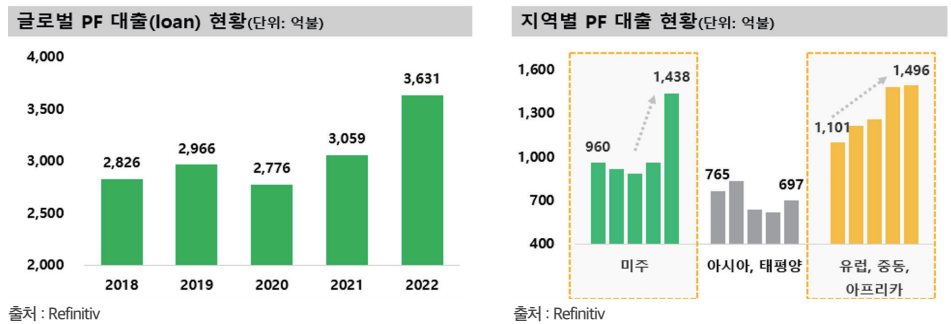
② Worldbank Group 1,044억불(commitment), EBRD 131억불(annual bank investment), EIB 783억불(financing agreement), ADB 205억불(total ADB operation), IADB 147억불(approvals), AfDB 82억불(approvals), CABI 43억불(approvals)
 ③ 22년 기준 OECD DAC 30개 회원국의 총 ODA 지원규모는 2,040억불 수준임
 ④ 인프라 등 시설물이 계약서에서 정한 성과기준을 충족하면, 해당국 정부가 사업자에게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
 ⑤ 선진국 투자개발형 사업 규모는 Refinitiv PF 대출(loan) 중, 저소득국가의 투자개발형 사업 규모는 Worldbank 민간 투자액 (PPI,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으로 가정

PF(Project Finance) 대출 규모는 최근 5년('18~'22년) 동안 연평균 6.5% 증가하여 '22년 3,631억불로 성장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주 지역 PF 대출은 연평균 10.6%, 영국·독일을 비롯한 유럽 및 사우디 아라비아 중심의 중동시장 PF 대출은 연평균 8.0% 수준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 아시아, 태평양 지역 PF 대출은 연평균 2.3% 감소하는 등 지역별로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 PF 규모의 50%를 차지하는 호주 인프라 시장을 중심으로 '22년부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이 호주 인프라 시장에 대한 진출을 추진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공종별로 알아보면, 발전, 오일·가스, 교통 사업에 투입된 PF 대출액이 전체의 78.5%를 점유하고 있다. 단, 성장률 측면에서는 데이터센터, 유망사업 제조라인 신증설이 확대되면서, 통신, 산업, 석유화학 공종에 대한 연평균 성장률이 평균(6.5%)을 훨씬 웃도는 30~70%를 나타내고 있다. 어떤 국가의 사업에 PF가 가장 많이 많이 투입되는지도 살펴본다. 미국 내 프로젝트에 대한 PF 대출액이 1,040억불로 단연 1위이며, 호주 413억불, 영국 250억불, 독일 176억불 등 선진국 인프라 시장을 중심으로 PF 대출이 활발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글로벌 PF 대출(loan) 현황



PF 전반에 대한 모델을 수립하고 주도적으로 금융을 주선하는 PF 대출 주간사(Mandate Arranger)는 어떤 기관이 포진해 있는지도 분석해 본다. 일본, 프랑스·스페인 등 유럽계 금융기관이 Top 10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이 '22년 PF 전체 대출액의 36.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Mitsubishi UFJ(194억불, 1위), Sumitomo Mitsui(176억불, 2위), Mizuho(122억불, 7위) 등 일본계 금융기관이 전체의 13.5%를 주선하고 있다. 또 프랑스 금융기관인 Societe Generale(149억불, 3위), Credit Agricole CIB(143억불, 4위), BNP Paribas(121억불, 8위), Natixis(75억불, 10위)도 이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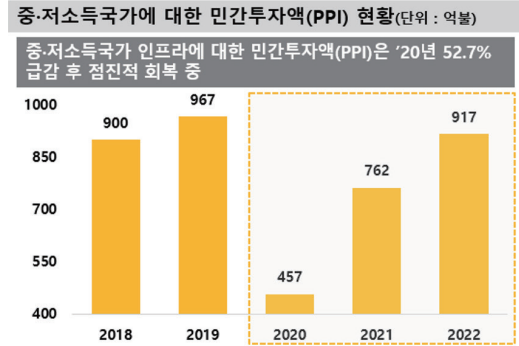
3.2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중·저소득국가 시장의 민간투자액

세계은행(Worldbank) 기준 중·저소득(low and middle income) 국가 인프라에 대한 '21~'22년 연평균 민간투자액(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PPI)은 840억불 수준으로 다소 회복했으나, 코로나 이전인 '18~'19년 연평균 투자액 934억불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미국, 호주, 유럽 주요국의 PF 대출 증가율과는 큰 차이가 난다.

공종별 민간투자액을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54.6%, 에너지 분야 37.4%로, 교통 및 에너지가 전체의 92.0%를 차지하고 있다. 성장률 측면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교통 인

프라가 각각 13.6%, 3.5%의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에너지 및 상하수도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림 6] 중·저소득국가에 대한 민간투자액 현황



출처: Worldbank

중저소득국 기준

구분	GNI per capita 기준(USD)
Low-income	1,135 이하
Lower middle-income	1,136 이상 4,465 이하
Upper middle-income	4,466 이상 13,845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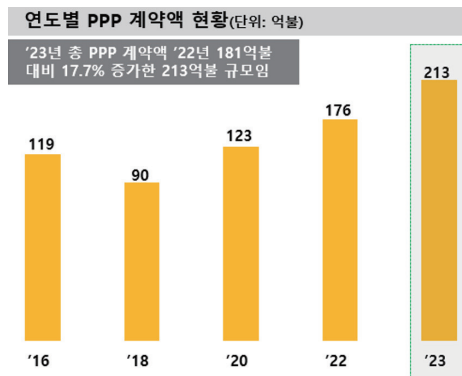
출처: Worldbank

3.3 MENA 지역의 PPP 발주 증가 및 PPP 사업의 대형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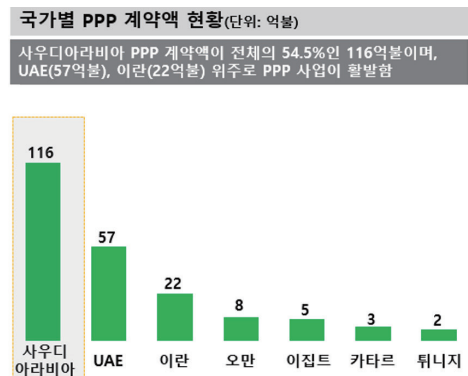
최근 전 세계적으로 프로젝트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재정 여건이 개선된 산유국들도 단순 도급형 사업 발주만이 아닌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발주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발주기관을 차주로 시공자가 금융을 주선하는 시공자 금융주선형 사업방식이 일부 산유국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중동 주요국의 탈석유 경제구조 및 산업다각화 정책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프라 시장에서 투자개발형 사업 방식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의 '23년 총 PPP 계약액(Total value of PPP Contracts)은 '22년 181억불 대비 17.7% 증가한 213억불로 집계됐다. 과거 5년('16~'20년) 동안 PPP 계약액 중 최대치가 123억불인 점을 감안할 때,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MENA 지역 전반에 투자개발형 사업 발주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 PPP 계약액을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계약액이 전체의 54.5%인 116억불이며, UAE(57억불), 이란(22억불), 오만(8억불), 이집트(5억불), 카타르(3억불), 튀니지(2억불)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7] MENA 지역의 PPP 계약 현황



출처: MEED Yearbook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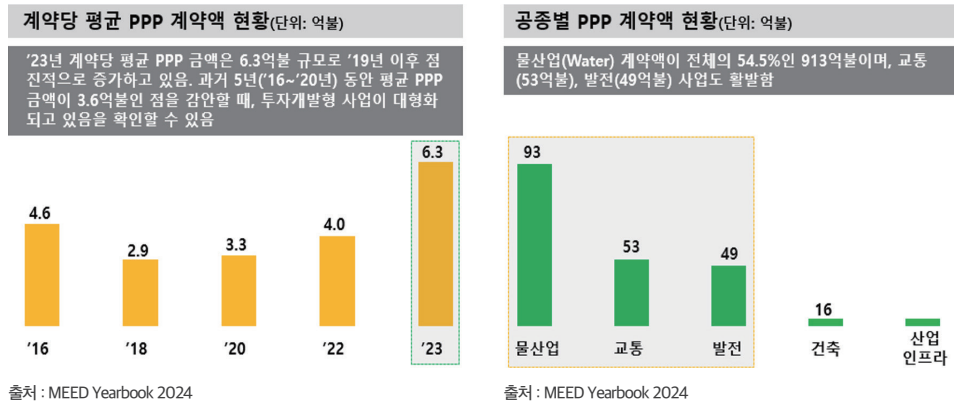


출처: MEED Yearbook 2024

사업의 대형화를 분석해 볼 수 있는 계약당 평균 PPP 금액(Average value per award)을 분석한 결과, '23년 평균 PPP 금액은 6.3억불 규모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 5년('16~'20년) 동안 평균 PPP 금액이 3.6억불인 점을 볼 때, MENA 지역의 투자개발형 사업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다.

공종별 PPP 계약액을 분석한 결과, 해수담수화 프로젝트를 비롯한 물산업(Water) 분야가 전체의 54.5%인 913억불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됐으며, 교통(53억불), 발전(49억불), 건축(16억불), 산업 관련 인프라(2억불)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8] MENA 지역의 평균 PPP 계약액 및 공종별 PPP 계약액 현황



3.4 최근 선진국 시장에서 채택되고 있는 혁신형 설계·시공 일체형(PDB) 발주 방식

선진국 시장에서는 사업 관리 방식에서도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설계-시공 분리(Design-Bid-Build), 시공 일체형(Traditional Design & Build, TBD), 시공책임형 CM(CM at Risk) 방식을 적용하면서 겪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 초기부터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혁신형 설계·시공 일체형^⑥(Progressive Design & Build, 이하 'PDB')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년경 캐나다에서 도입된 동 PDB 방식은 주요 선진국에서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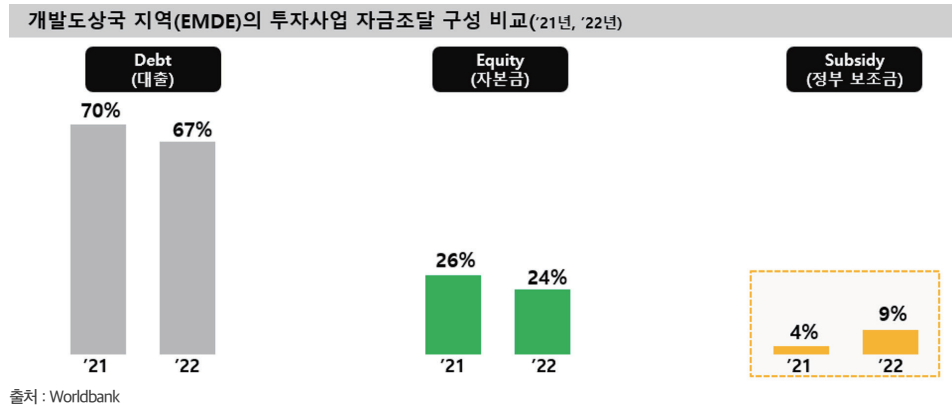
즉, 기술력을 비롯해 사업 경쟁력을 인정받은 민간 사업자가 발주처와 공동으로 사업을 구체화하고, Open Book 방식의 협의를 통하여 상호간 리스크를 분담하는 모델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PDB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조정하여 시공 리스크의 감소 및 공사기간 단축 효과를 통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선순환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⑥ PDB 방식은 사업 초기부터 설계자설계자, 발주자발주자, 시공사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를 통해 독소조항 제거 등 이해관계자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음

04 개발도상국 투자개발형 사업의 자금조달 현황 비교

세계은행(Worldbank)에 따르면, '22년도 개발도상국 지역(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EMDE)의 투자개발형 사업 자금조달 구성은 Debt(대출) : Equity(자본금) : Subsidy(정부 보조금) = 67% : 24% : 9%로 나타났다. '22년도 자금조달 구성을 '21년과 비교해 보면, Debt, Equity 비중이 각각 3%p, 2%p. 감소한 반면, Subsidy는 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도국 투자개발형 사업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투자 유치의 한계 등으로 정부 보조금 등 공공의 사업 지원 및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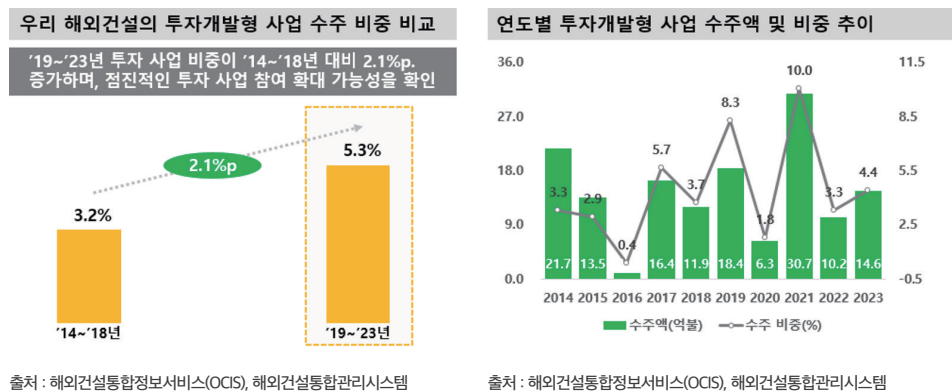
[그림 9] 개발도상국 지역(EMDE)의 투자사업 자금조달 구성 비교('21년, '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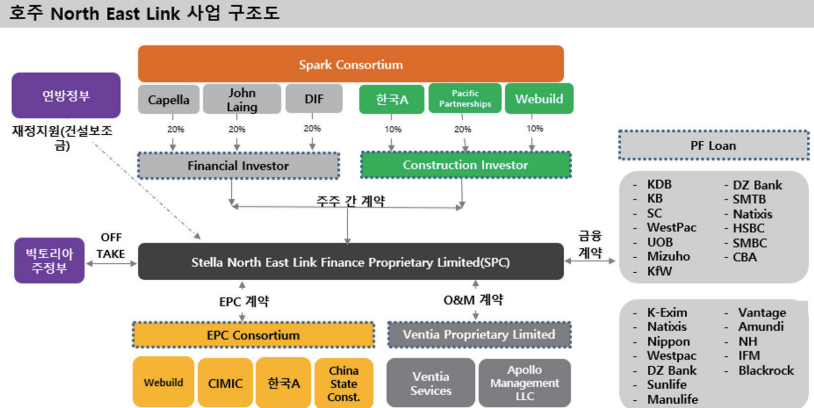
05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 현황

최근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도로 PPP 사업 참여가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19~'23년 투자 사업 비중은 5.3%로 '14~'18년(3.2%) 대비 2.1%p. 증가했다. 최근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수주 비중이 5%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향후 점진적인 투자개발형 사업 참여 확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우리 기업이 수주한 투자개발형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호주 노스 이스트 링크(North East Link) 도로 및 노르웨이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같은 선진국 토목 사업, 오만 샤르키야 해수담수화 플랜트와 같은 산업설비,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 시티 복합개발사업과 같은 건축 사업 등으로 진출 국가 및 수행 공종이 다변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사업의 리스크를 적절히 분배하면서 글로벌 선진기업 및 현지 기업이 가진 특징점을 활용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링(Partnering) 전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0]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 현황



[그림 11] 호주 노스 이스트 링크 사업 구조도



출처 : Refinitiv 등 관련 자료 종합

06 주요국의 투자 사업 전망

우리나라와의 협력이 예상되는 국가의 건설시장에도 투자개발형 사업 발주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G20 개최국이자, 세계 3위의 건설시장인 인도에서는 변형된 투자개발형 사업 모델을 도입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도 펴고 있다. 특히 도로 등 교통 인프라에서는 EPC와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이 혼합된 HAM(Hybrid-Annuity Model)을 활용하고 있는데, HAM은 사업비의 40%는 정부, 60%는 민간에서 투자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Invest India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도시, 도로, 철도, 상하수도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특정 분야에 대한 외국 인직접투자를 100% 허용하는 정책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위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시장에 대해 살펴보면, 사우디 'Vision 2030'의 핵심인 탈석유·경제다각화를 위해 5조 리얄(약 1,500조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정책이 인프라 시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된 'Discover NEOM' 전시회에서 NEOM CEO인 나드미 알 나스르(Nadhmi Al-Nasr)는 사업 참여를 위한 의미있는 파트너십과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피력한 바 있다. 즉, 초대형 사업인 네움 프로젝트(5,000억불) 사업의 수주에서도 자금조달이 수주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네움 프로젝트 사업비의 1/3이 투자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미국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Jacobs⁷⁾는 네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위해 아람코(Aramco) 및 사우디 국부펀드와 'JASARA'라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하여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 경쟁력 및 PM 역량을 갖춘 Jacobs는 The LINE 프로젝트의 PM社로 선정^(23.2)된 바 있다.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사우디 법률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현지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23년 1월부터 발효된 개정 '회사법'은 회사 설립 및 기업 인수 합병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제한 사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22년 4월 법안 발표 후 심사 중인 '신투자법'은 외국 기업을 사우디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외국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개발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민영화법은 '21년 공포 후 시행 중이다. 이러한 법·제도의 방향은 UAE, 카타르 등 중동 주

⁷⁾ ENR 기준 2022년 해외엔지니어링 분야 매출 5위 기업임

요곡으로 확산되고 만큼, 우리 기업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중동의 사업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신수도 이전 사업 관련 우리나라와의 협력이 기대되는 인도네시아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등 정부의 신수도 이전 사업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 재정 19%, PPP 55%, 민간투자/국영·지방공기업 26%로 구성되어 있다. 즉, 초대형 사업인 신수도 이전 사업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나, 정부 재정의 한계로 민간 자금의 동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4월, 대규모 차관 제공으로 수주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사업을 준공했는데, 동 프로젝트에 레일(Rail) 및 차량을 비롯한 주요 기자재·장비가 중국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자카르타 지하철 등 인도네시아 주요 사업에 대한 수주를 추진 중인 일본도 자이카(JICA) 지원 등 ODA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인프라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처럼 경쟁국의 금융 경쟁력을 활용한 사업 수주 전략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으며, 투자한 만큼 자국의 건설사, 기자재 업체가 동반 진출하게 되는 경향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07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관련 애로사항 및 지원 전략

앞서 진단한 비와 같이투자개발형 방식의 사업 발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도급 방식의 사업에 익숙했던 우리 기업들이 지금 당장 투자개발형 사업 참여 비중을 높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어려움을 단순화해 보면, 첫 번째는 선진국에서의 투자개발형 사업 참여를 위한 매물비용이 크다는 점이다. 최근 주요 대기업에서 호주, 노르웨이 등 선진국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직면한 문제는 과도한 입찰비용 등 초기 매물 비용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사업 참여에 대한 회사내 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이 어렵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비와 같이 투자개발형 사업이 단 순 도급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회사내에서는 장기간 소요되는 투자 개발형 사업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선진 기업 대비 사업 경험과 역량이 아직 부족해 주저할 수 밖에 없는 점도 현실이다. 두 번째는 투자에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 발굴이 어렵다는 점이다. 발전 사업의 경우, 우리나라 발전공기업, 건설사가 중심이 되어 사업주 구성 및 사업비 조달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 철도를 비롯한 교통 프로젝트는 수요 예측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자금 회수 리스크 등으로 건설사의 소액 지분투자 외에는 국내 투자자를 찾는데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점진적인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 확대를 위해서 지원 전략이 필수적이다.

[그림 12] 투자개발형 사업 지원 전략

투자 사업 증가 원인 및 대응 전략	
주요 원인	<p>팬데믹 이후 국가 부채 증가·경기 침체 → 국가별 내수 경기 진작·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투자 필요</p> <p>→ 단, 부채 증가 최소화 및 민간금융 활용 등을 위한 투자 사업 발주를 선호하는 사업 증가</p>
지원 전략 ①	<p>선진국 및 중저소득국 투자사업 참여를 위한 Two track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사업을 통해 초기 매물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중저소득국) EIPP, KSP를 통한 사업 발굴 - EDFC, EDPF를 활용한 인프라 지원 - ECA 금융 및 정책펀드(PIS, GIF) 등 복합금융 활성화
지원 전략 ②	<p>지분출자 한도 관련 제도 보완 Secondary Market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ND의 지분출자 한도'를 사업의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필요 * KIND의 지분출자 한도 : 현재 국내 투자자 중 최대주주 지양 • 중장기적으로 개도국 사업에 대한 수익증권, 대출채권의 원활한 Exit을 지원하는 Secondary market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지원 전략 ③	<p>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성과가 평가에 반영되도록 경영평가 지표 설정 등 해외사업실적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부여 검토 •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사업 범위 현실화 및 해외건설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홍보

지원 전략의 첫 번째는 선진국 및 중저소득국의 투자개발형 사업 추진 모델에 대한 Two track 전략이다. 선진국 내 투자개발형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요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넓혀 초기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안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 그리고 수주에 성공한 경우, 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의 특정 비율을 다시 지원사업의 예산으로 재투입하는 사안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이뤄진다면, 지속가능한 투자개발형 사업 지원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저소득국 투자개발형 사업의 경우에는 EIPP, KSP를 통한 사업 발굴 - EDCF, EDPF를 활용한 인프라 지원 - 수은, 무보 등 수출신용기구(ECA) 금융 및 정책펀드(PIS, GIF) 등을 적기에 투입하는 복합금융 활성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지분출자 한도 관련 제도 보완 및 Secondary Market 활성화이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지분출자 한도^⑨를 사업의 수익성 및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개도국 사업에 대한 수익증권 등의 원활한 Exit을 지원하는 Secondary market 활성화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세 번째는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투자개발형 사업 등 해외건설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성과가 경영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 및 이행관계자간 협의 과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최근 타산업과 융합된 형태의 해외수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사업의 범위 현실화 및 해외건설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홍보도 대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지원 전략을 비롯해 기업 및 정부의 해외건설 역량이 모두 모아진다면 '연 500억불 수주, 세계 4대 강국 진입'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국가경제 기여-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⑨ 현재 KIND의 지분출자 한도 국내 투자자 중 최대주주 지양

※ 참고문헌

01. 글로벌인프라스트럭처허브, 2023, <https://www.github.org/>
02. 런던스톡익스체인지그룹, 2023, <http://workspace.refinitiv.com/web>
03. 세계은행, 2023, <http://ppi.worldbank.org/en/ppi>
04. 아시아개발은행, 2023, 아시아개발은행 연차보고서 2022
05. 중미경제통합은행, 2023, 중미경제통합은행 연차보고서 2022
06. 유럽부흥개발은행, 2023, 유럽부흥개발은행 연차보고서 2022
07. 유럽투자은행, 2023, 유럽투자은행 활동보고서 2022
08. 미주개발은행, 2023, 미주개발은행 연차보고서 2022
09. 세계은행그룹, 2023, 세계은행그룹 연차보고서 2022
10. MEED, 2023, MEED YEARBOOK 2024